생생리포트

2008년 서울시민 체감경기전망조사

박희석(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)
박지희(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)

서울시민 체감경기조사

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산업경제센터 박희석(부연구위원·hspark@sdi.re.kr)
박지희(연구원·nanaplia@sdi.re.kr)

- 서울 시민들이 2008년도 생활형편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심층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음
- 이러한 조사를 통해 일반시민들이 현재 체감하는 경기상황을 알아보고 향후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서울시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함
- 본 조사는 Ⅰ. 서울지역 경제 현황, Ⅱ. 시민의견조사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음
- 설문방법은 우리연구원의 메일링 서비스 가입자(3만7,000명)와 서울시 홈페이지 회원가입자(15만1,771명)를 통해 온라인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그 결과를 취합하여 조사하였음

본 설문조사는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, 「서울시정개발연구원」 및 「서울특별시」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

■ 본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보지원팀 강향숙 선생님과 서울시 정보화기획단 담당자, 그리고 온라인 설문에 응해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Ⅰ. 서울지역 경제 현황

1. 국내외 경제여건

- 국외 요건의 불확실성 증대는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제약하는 (-)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(한국은행, 2008 경제전망)
-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, 물가불안심리 확산 등 유가상승의 부정적 영향이 점차 현재화될 수 있음
- 이러한 리스크요인으로 인해 국내경기가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
- 그러나, 유가 상승세 지속, 서브프라임 부실 영향 확산 등 하방리스크 요인이 예상외로 악화될 경우 국내경기 상승 모멘텀이 크게 악화될 수 있음
- 국내 여건은 경기회복기대에 따른 가계의 구매력 개선, 신정부 효과 등으로 민간 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
- 또한 건설투자도 지역균형개발사업, 2기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임

〈표 1〉 2008년 국내외 경제여건

	(+) 요인	(-) 요인
국내 요인	• 가계의 구매력 개선 • 지역균형개발사업, 2기신도시 건설, 미군기지 이전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시행	• 물가상승압력 증가 •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출 둔화 • 한은의 유동성조절과 자금시장통합법(2009년)에 대비한 금융기관간 예금유치 경쟁으로 금리상승 압력 가중
국외 요인	• 중국 경제의 국내투자 확대와 소비 증가 등에 힘입은 지속적인 고성장	•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• 글로벌 달러의 약세로 원화강세 기조 지속 • 서브프라임 여파에 따른 글로벌 신용경색 및 미국경제 둔화 우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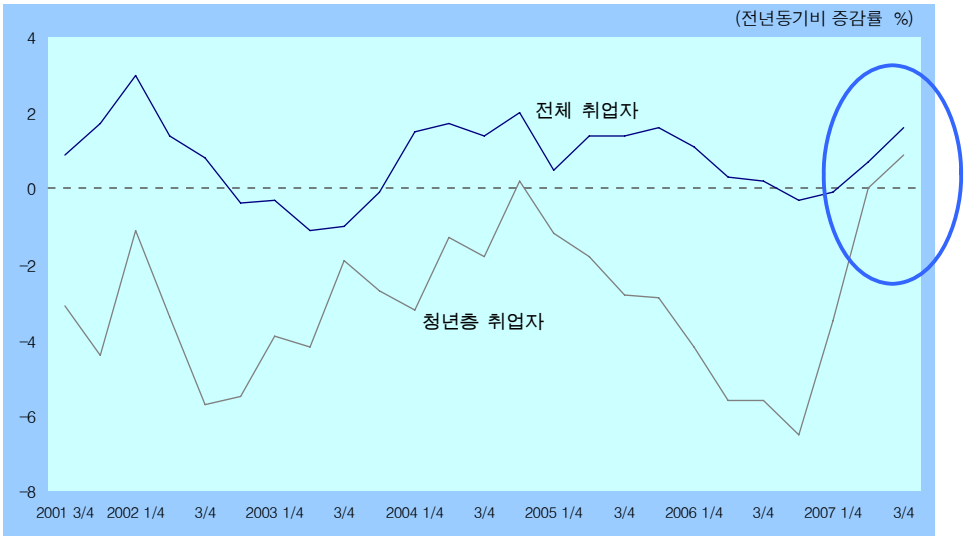
〈표 2〉 2008년 경제전망

(단위: %, 억 달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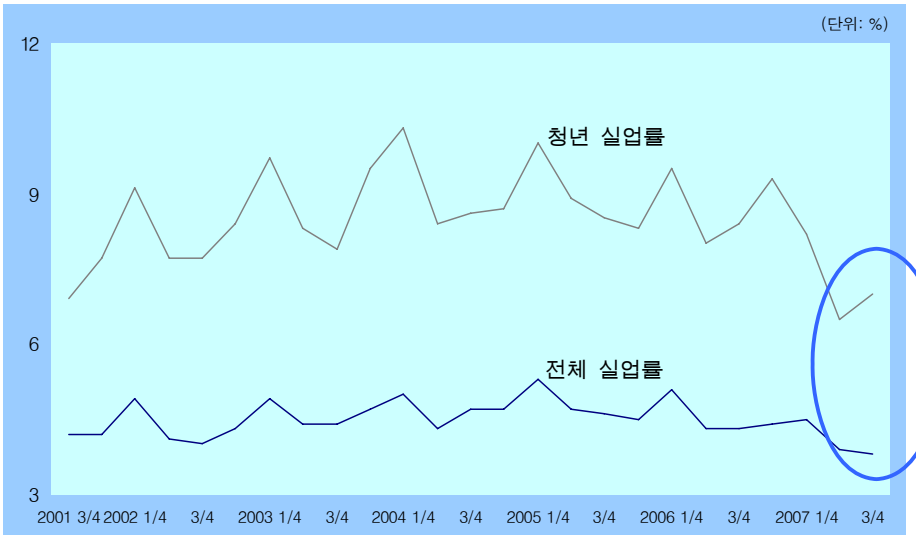
구 분	SERI	한국은행	평균
경제성장률	5.0	4.7	4.9
민간소비	4.5	4.3	4.4
건설투자	3.9	2.8	3.4
설비투자	7.9	6.4	7.2
소비자물가	2.8	3.3	3.1
실업률	3.2	3.2	3.2
경상수지	-29	30	0.5
무역수지	142	260	201
수출 (증가율)	4,150 (11.9)	4,140 (11.6)	4,145 (11.8)
수입 (증가율)	4,008 (13.6)	4,010 (13.4)	4,009 (13.5)
원/달러	925	-	-
회사채수익률	6.0	-	-

2. 고용

- 서울시 취업자 증감률은 전년동기비 기준 2003년 2/4분기에 -1.1%로 저점을 찍은 후 2006년 3/4분기까지 상승세를 유지함
- 2006년 4/4분기에 전년동기비가 -0.3%를 보인 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서 2007년 2/4분기에는 전년동기비 0.7%, 3/4분기에는 1.6%를 나타냄
- 청년층(15 ~ 29세) 취업자 증감률은 서울시 전체 취업자 수의 증감률 추이와 비교할 때 그 변동폭이 더욱 크게 나타남
- 서울시 전체 취업자수의 전년동기비 증감률이 하락세로 돌아선 2006년 4/4분기에 청년층 실업자 증감률은 200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여 전년동기비 -6.5% 의 하락을 보인후 2007년 들어 상승세로 급반등하여 3/4분기 0.9%를 기록함



<그림 1> 서울시 분기별 취업자 증감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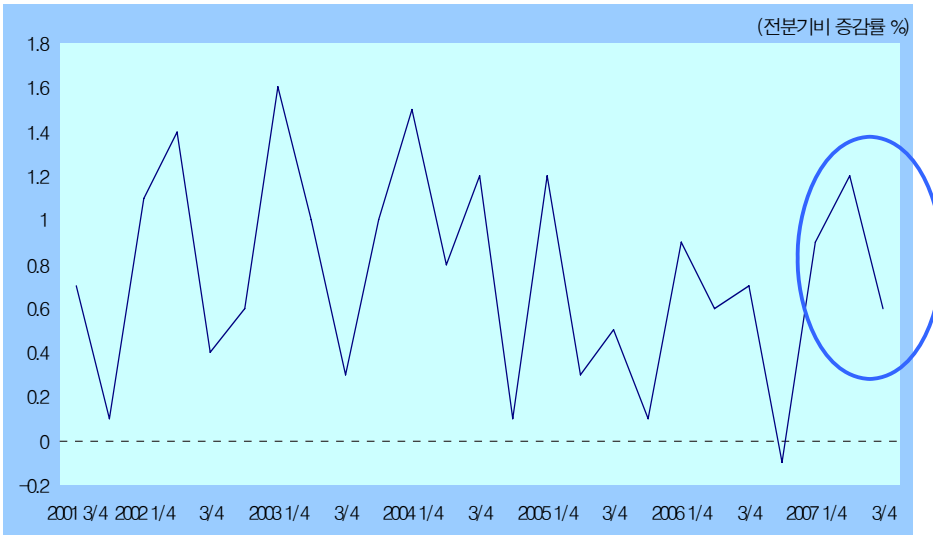
주: 실업율은 원지수임

<그림 2> 서울시 분기별 실업율

- 서울시 실업률은 2001년 1/4분기에 6.1%의 높은 실업률을 보인 이래로 감소 혹은 보합상태를 보이며, 2007년 1/4분기 이후 감소 추세를 보임
- 청년층(15 ~ 29세)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실업률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
- 그러나 2007년 3/4분기에 서울시 전체 실업률이 계속된 하락을 보인 반면, 청년층 실업률은 6.5%에서 7.0%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
3. 물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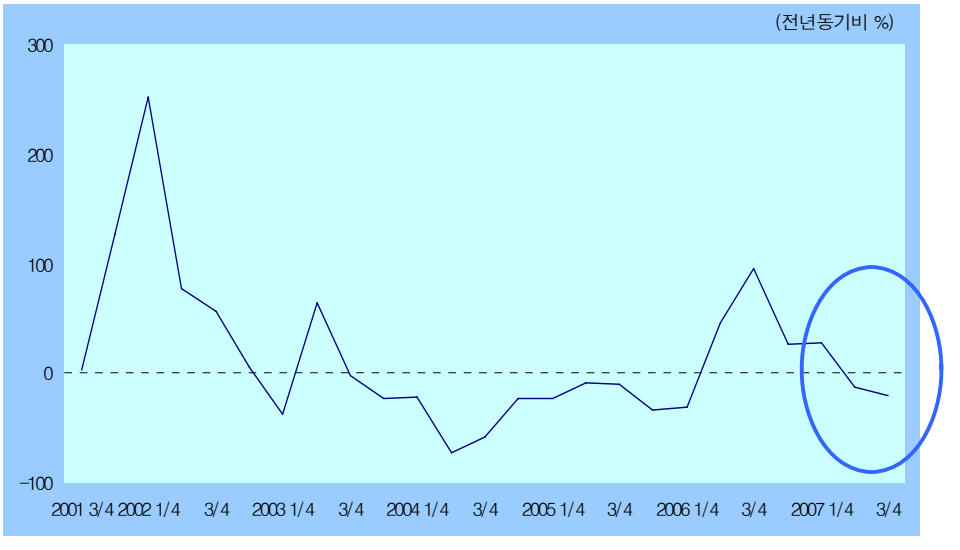
- 서울지역의 소비자물가 동향은 2006년 4/4분기에 전분기비가 -0.1%를 나타내어 일시적인 하락을 보인 후 2007년 들어 상승세가 이어짐
- 2007년 3/4분기 소비자물가 증가율은 0.6%로 1/4분기 증가율(0.9%)보다 낮게 나타남
- 세부항목별로 보면, 철도이용료(0.0%)와 육상이용료(0.0%)는 2007년 2/4분기에 전분기 대비 각각 8.1%와 7.0%로 크게 상승하였던 것이 1/4분기 수준(0.8%, 0.0%)으로 하락함
- 반면, 항공 및 여객선 이용료는 4.8%로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함



<그림 3> 서울시 소비자물가동향

4. 건설투자

- 서울지역의 건축허가면적은 2002년 1/4분기에 최고(252.4%)를 기록하고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 2004년 2/4분기(-72.6%)를 기점으로 상승세로 돌아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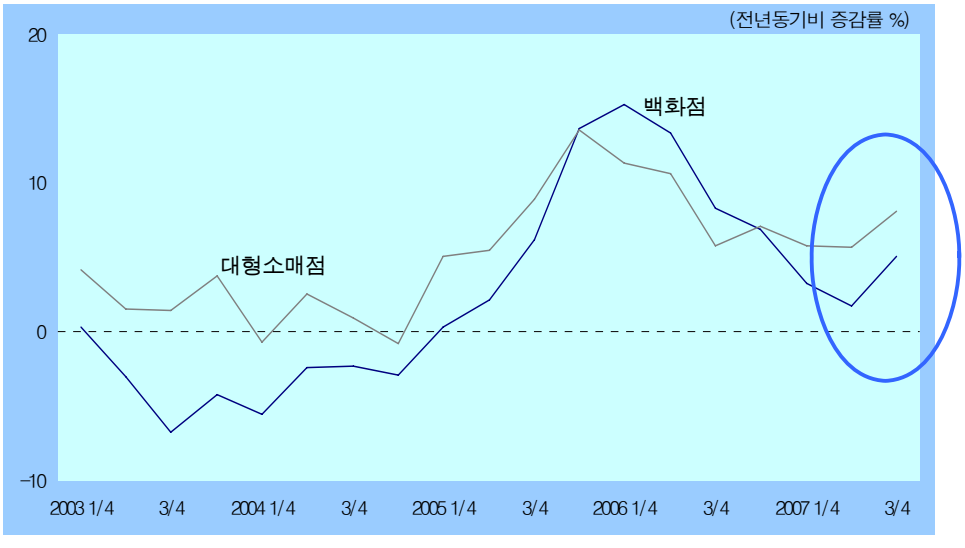


<그림 4> 서울시 분기별 건축허가면적

- 그러나 2006년 3/4분기(95.0%) 이후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전년동기비 건축허가면적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2007년 3/4분기에 -19.9%로 나타남

5. 소비

- 서울지역의 대형소매점 판매동향은 2005년까지는 전년동기비 백화점보다 판매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
- 이후 2006년은 백화점의 전년동기비 판매증가율이 대형소매점을 상회하는 것으로 반전됨
- 2007년 들어 대형소매점의 전년동기비 판매증가율이 대형소매점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다시 반전됨
- 2006년을 1/4분기를 기점으로 하락추세에 있던 대형소매점과 백화점의 판매증가율은 2007년 2/4분기 이후 다시 증가세로 들어서면서 3/4분기에는 대형소매점 8.1%, 백화점 5.1%의 증가율을 기록함



<그림 5> 서울시 대형소매점 분기별 판매증감률

Ⅱ. 시민의견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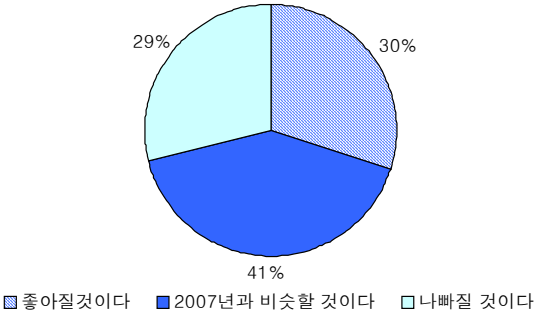
대상: 서울시민
방법: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메일링 서비스 가입자와 서울시 홈페이지 가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함
(http://research.joongang.com/survey.php?act=v&id=07-9-1627)
기간: 2007년 12월 13일 - 12월 22일

○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최근 체감경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,321명이 응답하였음

- 조사방법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메일링 리스트 회원(3만7,000명)과 서울시 홈페이지 가입자(15만1,771명)를 대상으로 함
-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남자 1,473명(63.5%), 여자 848명(36.5%)으로, 연령별로는 20대가 10.3%(238명), 30대가 29.9%(694명), 40대가 27%(626명), 50대이상이 32.9%(763명)로 구성됨
- 설문 응답자의 30대 이상이 89.7%로 주된 경제활동층임

○ 지난해와 비교해서 2008년 생활형편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2007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기대하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함(<그림 6> 참조)

- '좋아질 것이다' 는 응답이 30%, '나빠질 것이다' 는 응답이 29%를 차지하여 긍정적 전망과 부정적인 전망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남



<그림 6> 2008년 생활형편 전망

〈표 3〉 2008년 가정형편 전망

(단위: 명, %)

구분		유효응답수	아주 좋아질 것이다	조금 좋아질 것이다	2007년과 비슷할 것이다	조금 나빠질 것이다	아주 나빠질 것이다
연령별	20대	238	2.5	26.9	**45.4**	18.5	6.7
	30대	694	1.7	24.2	**43.9**	23.3	6.8
	40대	626	1.8	28.3	**42.2**	21.9	5.8
	50대이상	763	1.6	32.1	**35.6**	23.6	6.3
월평균소득별	100 만원 미만	460	1.5	23.0	**39.6**	25.0	10.2
	100 ~ 200 만원	644	1.6	27.6	**41.3**	23.1	6.1
	200 ~ 300 만원	534	1.3	28.3	**44.6**	20.0	5.8
	300 ~ 400 만원	310	2.3	30.0	**41.3**	22.3	4.2
	400 ~ 500 만원	166	1.8	34.3	**38.6**	23.5	1.8
	500 만원 이상	112	5.4	**38.4**	32.1	15.2	7.1

주: 유효응답수는 무응답수를 포함한 값임

○ 연령별로 2008년 가정형편 전망을 살펴보면, 50대이상에서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(<표 1> 참조)

- 50대이상은 2008년에 가정형편이 좋아질 것이다는 응답이 33.7%(아주 좋아질 것이다와 조금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을 합한 수치임)를 차지하여 20대 29.4%, 30대 25.9%, 40대 30.1% 인 것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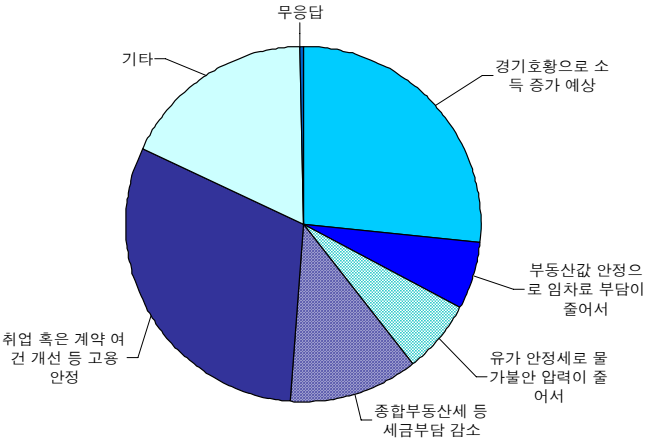
- 2008년에 가정형편이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20대 25.2%(아주 나빠질 것이다와 조금 나빠질 것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을 합한 수치임), 30대 30.1%, 40대 27.7%, 50대 29.9%로 30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

○ 소득에 따른 응답자들의 2008년 가정형편 전망을 살펴보면 고소득일수록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

- 월평균소득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 35.2%가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하여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(24.5%)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임

- 그러나 월평균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2008년 가정형편이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평균 35.5%로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(평균 25.0%)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

- 특히, 월평균소득이 500만원 이상의 경우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43.8%의 높은 비율로 2007년도와 비슷할 것이다는 응답(32.1%)보다도 높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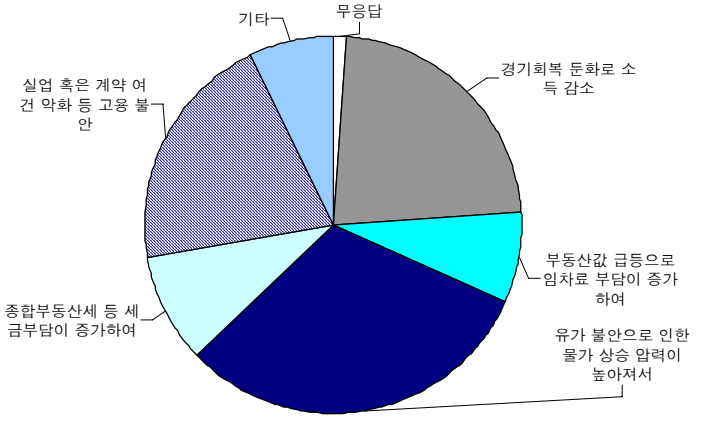
<그림 7> 가정형편이 좋아지는 이유

○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 중 취업 혹은 계약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고용이 안정되어서 라는 응답이 30.8%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(<그림 7> 참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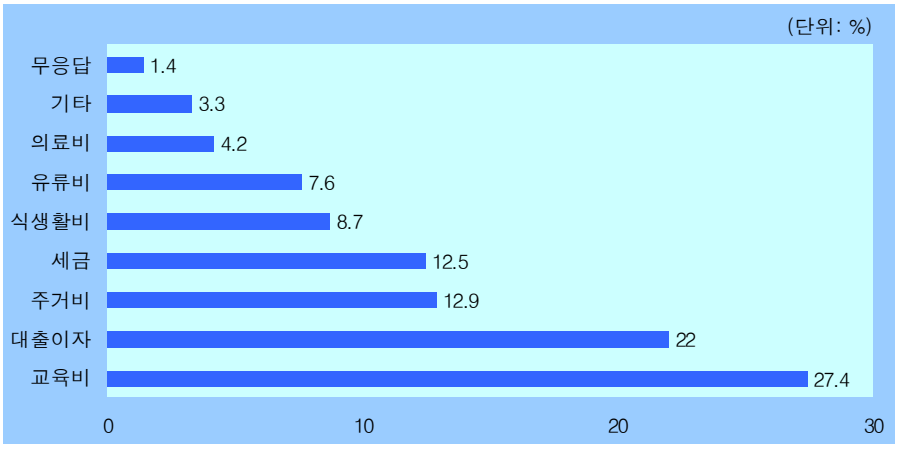
- 경기 호황으로 인해 소득이 증가하여 가정형편이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26.6%로 그 뒤를 이음
- 기타 이유로는 새정부에 대한 기대심리, 부채탕감, 자녀의 취업, 맞벌이 등의 의견이 있었음

○ 나빠질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 중 유가 불안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늘어서 라는 응답이 31.2%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(<그림 8> 참조)

- 경기 회복 둔화로 소득이 감소하여 가정형편이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22.8%, 실업 혹은 계약 여건 악화 등 고용 불안 때문이라는 응답이 20.4%로 그 뒤를 이음
- 기타 이유로는 자녀의 대학입학 혹은 사교육으로 인한 교육비 지출, 대출이자의 상승 등의 의견이 있었음



<그림 8> 가정형편이 나빠지는 이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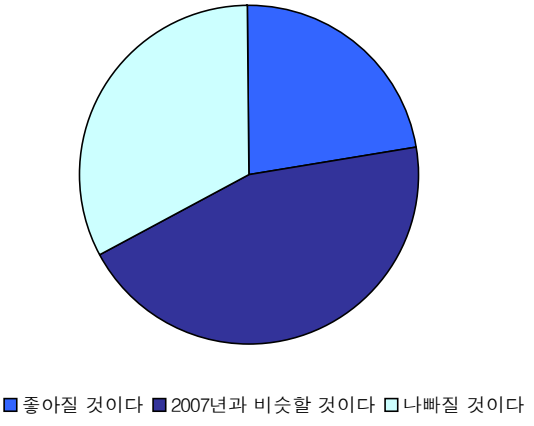
<그림 9> 가장 부담되는 소비 항목

○ 가계 소비 중 경제적으로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은 교육비로 나타남(<그림 9> 참조)

- 설문응답자 2,321명(무응답 32명) 가운데 27.4%가 교육비가 가장 부담스럽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

- 그 외에 가계소비 중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이 대출이자라는 응답이 22.0%, 주거비가 12.9%, 세금 12.5% 등의 순으로 나타남

○ 지난해와 비교해서 2008년 소비생활이 더 나아질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2.8%가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함(<그림 10> 참조)



<그림 10> 2008년도 소비생활 전망

- 2007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43.8%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32.8%로 소비생활이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비율 22.4%보다 높게 나타남
- 내년에 가정형편이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소비생활이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비율이 더 낮아 가정형편의 개선이 소비생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줌

○ 연령별로 2008년 소비생활 전망을 살펴보면, 모든 연령대에서 2007년과 비슷할 것으로 기대하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(<표 4> 참조)
- 특히, 20대는 2008년도 소비생활이 2007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50%에 가깝게 나타나 다른 연령대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보임

○ 소득에 따른 응답자들의 2008년 소비생활 전망을 살펴보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2007년과 비슷할 것으로 기대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(<표 4> 참조)
- 연령별 소비생활 전망과 마찬가지로, 월평균소득별 소비생활 전망도 2007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40%가 넘게 차지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

<표 4> 2008년 소비생활 전망

(단위: 명, %)

구분		유효 응답수	아주 좋아질 것이다	조금 좋아질 것이다	2007년과 비슷할 것이다	조금 나빠질 것이다	아주 나빠질 것이다
연령별	20대	238	1.3	18.9	**49.6**	23.5	5.9
	30대	694	1.4	18.7	**42.9**	28.5	7.6
	40대	626	0.6	21.1	**46.8**	25.1	5.6
	50대이상	763	0.8	24.9	**40.4**	26.5	6.0
월평균소득별	100 만원 미만	460	1.3	18.0	**42.2**	28.9	8.9
	100 ~ 200 만원	644	0.5	20.8	**44.6**	27.0	5.9
	200 ~ 300 만원	534	0.9	21.2	**46.1**	25.3	5.8
	300 ~ 400 만원	310	1.0	22.9	**42.9**	26.1	5.8
	400 ~ 500 만원	166	0.6	28.3	**45.8**	21.1	3.6
	500 만원 이상	112	4.5	26.8	**42.0**	18.8	6.3

주: 유효응답수는 무응답수를 포함한 값임

○ 2008년에 소비생활이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 50.9%가 임금인상(26.3%)이나 사업소득(24.6%)의 증가 때문이라고 응답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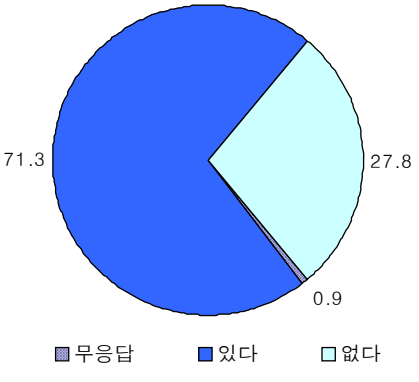
- 기름값을 비롯한 물가 안정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13.3%에 해당함
- 그 외 주식 혹은 펀드 등의 투자이익 증가라고 응답한 경우가 10.8%, 대출이자 부담 감소 6.0%, 교육비(대학 등록금 혹은 과외비 등) 부담의 감소 6.5%, 부동산 가격 안정 9.0%, 무응답 3.5%로 나타남

○ 2008년에 소비생활이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 32.7%가 계속되는 유가 상승과 물가 인상 때문이라고 응답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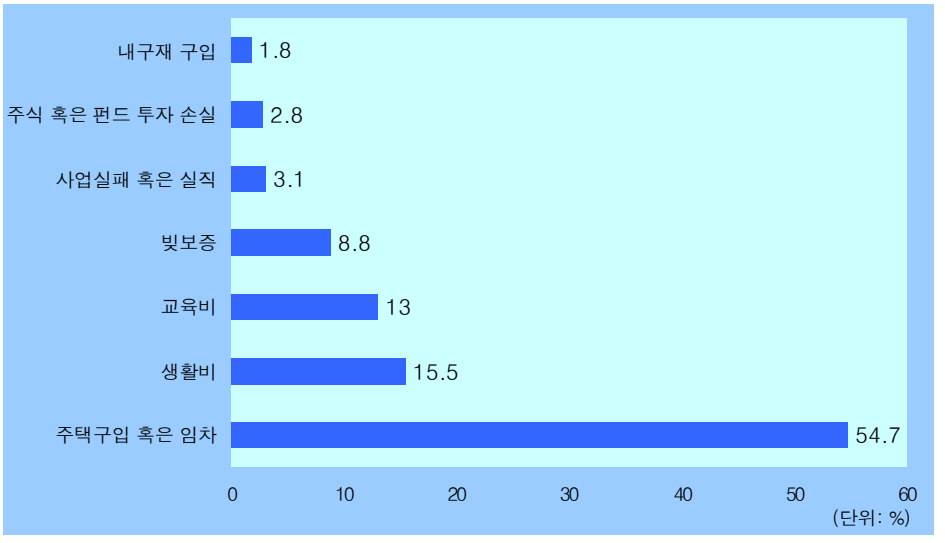
- 이어서 교육비 부담의 증가가 17.6%, 임금감소 혹은 고용불안이 14.8%, 주택구입 혹은 임차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의 증가가 12.2% 순으로 나타남

○ 설문응답자 2,321명 가운데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1.3%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(<그림 11> 참조)

- 부채의 원인으로는 주택구입 혹은 임차로 인한 경우가 54.7%로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시민의 절반이 넘는 수를 차지함
- 생활비로 인한 부채는 응답자의 15.5%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
- 또한 교육비로 인한 부채가 있다는 응답도 13.0%를 차지하여 가계에 교육비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



<그림 11> 가계부채 여부



<그림 12> 가계부채의 원인

○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 한달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

-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한달 사교육비로 30~50만원을 지출한다는 응답이 36.3%로 가장 높게 나타남

-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있는 경우 한달 사교육비로 100만원 이상 지출한다는 응답이 35.9%로 가장 높게 나타남

-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있는 경우 한달 사교육비로 100만원 이상 지출한다는 응답은 42.0%로 가장 높게 나타남

- 특히,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 한달 사교육비가 100만원 이상 지출되는 경우가 40%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비 부담이 가계에 큰 영향을 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음

<표 5> 한달 사교육비 현황

(단위: %)

구분	유효 응답수	30만원 미만	30~50 만원	50~70 만원	70~100 만원	100만원 이상
유치원생과 초등학생	91	19.8	36.3	23.1	7.7	13.2
초등학생과 중학생	103	4.8	27.2	14.6	17.5	35.9
중학생과 고등학생	81	1.2	13.6	18.5	24.7	42.0

주: 유효응답수는 무응답수를 포함한 값임

○ 내년에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16.8%만이 주택구입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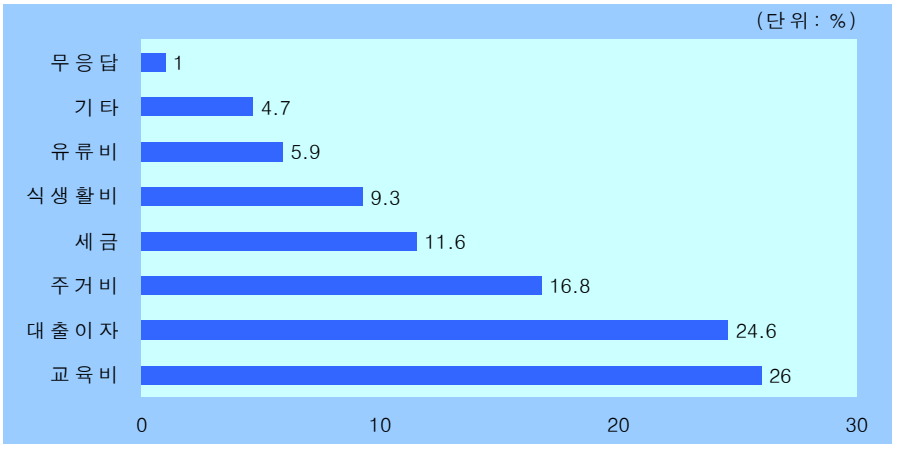
- 이들 가운데 현재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는 비율은 각각 40.0%와 13.8%에 해당함
- 현재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내년에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37.4%의 비율을 보임

○ 현재 노후대비를 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50대 이상이 34.9%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, 20대도 10.1%가 노후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함

- 그러나, 40대의 경우 노후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이 24.1%로 나타나 노후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30대가 30.9%인데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남

○ 내년에 어떤 항목이 가계에 가장 큰 부담이 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교육비가 26.0%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임(<그림 13> 참조)

- 이어서 대출이자가 24.6%, 주거비 16.8%, 세금 11.6% 등의 순으로 나타남
-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식생활비가 가장 큰 부담이라고 응답하였으며(25.8%), 100만원~200만원인 경우 주거비를(36.0%), 200~300만원인 경우 대출이자를(26.8), 300~400만원인 경우 교육비를(19.4%) 가장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응답함



<그림 13> 2008년에 가장 큰 부담이 될 소비 항목

○ 서울시책 중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묻는 질문에 대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가장 많이 꼽았음

- 뒤이어 서민용 공공임대주택 확충, 노인전문 요양센터·노인수발보험제도 등 치매종합복지서비스 제공, 믿고 맡길 보육환경 조성, 집 주변 생활공원·동네 숲 마당 등 녹지와 공원 확충, 외국영화 서울로케이션 유치, 거리벽화 조성 등의 문화 인프라 확대 및 지원의 순으로 나타남